

이재명 “日 자위대와 합동 훈련, 국방 참사·안보 자해행위”

여야, 한미일 연합훈련 두고 충돌...민주 “윤대통령 소명해야”
국힘 “안보 망치는 망언”...성일중 “훈련 같이한다고 친일 아냐”

여야가 동해에서 실시된 한미일 연합훈련을 두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전면에서 나서 안보를 망치는 망언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1일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전 대통령)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독도에서 180km 떨어진 바다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한다고, 일본군이 이 땅에 진주한다는 분이 나타났다”며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았으면 한다. 대한민국이 주권을 내려놓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본군의 한국 주둔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며 “일본은 국운을 걸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무력으로 제압했고, 쓰러져가는 조선 왕조를 집어삼켰다.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중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수십 년 전이나 통했을 알뜰한 친일 몰이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속셈을 극단적 친일이라는 말로 포장해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일본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직

면해 있다. 위기가 왔을 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함께 훈련하는 게 왜 극단적 친일이나냐”며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극단적인 친일이 아니라 극단적인 친북 아니냐. 한반도에 육일기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럼 (북한)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다는 말이나”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국가적 재앙인 일본과의 군사동맹 우려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소명하고, 한미일 합동 실전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일본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서 합동 실전군사훈련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며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정권이 들어서서 때마다 일본의 군사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문제들을 지적하면 어김없이 시대착오적인 중북몰이,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하나씩 하나씩 놓아지는 느낌”이라며 “우리 국민들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육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왼쪽), 김병주 의원(가운데)과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일 군사협력 강화

에 대해 국민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야당의 친일국방, 육일

기 공세와 관련된 질문에는 “현명한 국민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생색내기’ 급급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103억원 특별교부세 확보” 발표
행안부, 낙후 지역에 많이 배정
치적처럼 홍보...예산 작업 뒷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며 앞다퉈 홍보에 나서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과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데도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부가 지역 특성을 감안해 배분하는 특별교부세를 마치 자신의 ‘치적’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 국비 미반영 사업도 많아 국회의 예산 작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각자도생’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지역 국회의

원들은 일제히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신들이 “최소 7억원에서 최대 103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통상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낙후 지역이나 다수의 지자체가 포함된 지역에 우선 배정된다. 또 ‘국회의원의 개인기’ 보다는 지역의 시급한 현안 등을 따져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재, 더불어민주당 윤영덕(동남갑) 국회의원은 7억원, 이병훈(동남을) 의원 19억원, 송갑석(서구갑) 의원 7억원, 무소속 양향자(서구을) 의원 15억원,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의원, 이형석(북구을) 의원 21억원, 이용빈(광주 광산갑) 15억원, 무소속 민형배(광산을) 의원이 8억원을 확보했다.

또 전남지역에서도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103억원,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77억원,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 58억원,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 52억원, 신정훈(나주·화순)·윤재갑(해남·진도·완도)

의원 각각 45억원,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 20억원, 김원이(목포) 의원 19억원, 김희재(여수을) 17억원, 주철현(여수갑) 의원이 12억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했다.

이처럼 도심보다는 낙후지역, 다수의 지자체를 보유한 선거구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많이 배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국회의원들이 때마침 교부세 홍보에 열을 올리면서 정작 국정감사와 예산 확보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각 지역 예산을 마지막으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의지가 강해 예년처럼 국회에서 살릴 수 있는 예산의 폭도 적을 것”이라면서 “광주의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윤영덕 의원이 포진해 있지만 윤 의원실 보좌·비서진이 전혀 예산 경험도 없고, 다른 의원실과 소통도 안해 더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

여의도 브리핑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 50% ‘특공 아파트’ 매도·임대”

서삼석 의원 국감 자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택지의 우선 특별공급을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직원들 중 2명 중 1명이 공공택지를 매도·임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특별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현재 건설중인 아파트 제외) 91명 중 매도 30명, 임대 16명 등 절반 이상인 46명이 분양 받은 아파트를 매도·임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8월 31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경기도 군포청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진행하며, 2012년부터 기관 임직원은 세종시 내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직원 30명 중 세종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4명으로 매도 사유를 살펴본 결과, 인사발령 후 복귀한 인원을 제외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거주지를 이동으로 인해 매도한 인원이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하기 전에 판매한 직원도 17명으로 이중 절반 이상인 10명이 본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특별공급을 받아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임대한 직원은 16명으로 이중 지방지원에서 근무하는 11명을 제외한 5명은 본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를 하는 한편, 직원 중에는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공무원·공공기관 근로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필요한 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위해 2차레나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4명의 직원은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상가매매(상무지구) (유형적합)	신축 원룸 매매	경매교육 [기초반] [특수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 상업지구 ▶ 유흥가능 (전용 100평) ▶ 시세 - 10억 ▶ 급매 - 6억8천 <p>(보3천, 월수익 380만, 용 4억) (유흥가능, 사무실, 빠, 룸, 홀덤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수익 - 720만 ● 연수익 - 9000만 ● 매가 - 14억5천 (용자 7억) <p>신축원룸 (공실없음)</p>	<p>* 경매실전 전문반 모집 (선착순10명) (경매기초교육부터 ~ 실전투자 수익창출까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2) 중급반 (실전부터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p>▶ 경매 물건 추천 ◀</p> <table border="1"> <tr> <td>남구 지석동 (토지) ▶</td> <td>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td> </tr> <tr> <td>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 ▶</td> <td>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td> </tr> <tr> <td>북구 삼각동 (머린이집) ▶</td> <td>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td> </tr> <tr> <td>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td> <td>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td> </tr> <tr> <td>광산구 하남동 (공장) ▶</td> <td>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 20억4천</td> </tr> <tr> <td>서구 농성동 (토지) ▶</td> <td>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td> </tr> <tr> <td>서구 풍암동 (토지) ▶</td> <td>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td> </tr> <tr> <td>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td> <td>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td> </tr> </table>	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	북구 삼각동 (머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 20억4천	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	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남구 지석동 (토지) ▶	감정가 2억1,300 →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수완동(윤슬의아침) ▶	감정가 6억3,300 → 최저가 4억4천																	
북구 삼각동 (머린이집) ▶	감정가 7억1,100 → 최저가 3억9천																	
광산구 쌍암동 (근린상가) ▶	감정가 5억1,800 → 최저가 2억9천																	
광산구 하남동 (공장) ▶	감정가 36억4,500 → 최저가 20억4천																	
서구 농성동 (토지) ▶	감정가 6억1천 → 최저가 4억2,800																	
서구 풍암동 (토지)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북구 용봉동 (근린상가) ▶	감정가 32억 → 최저가 11억6천																	
010-6670-9800		010-2614-9801																